

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(**한경BUSINESS** 국제면 기고)

법무법인 지평지성 '글로벌 비즈니스 센터'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'한경비즈니스' 국제(Global)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러시아, 일본, 브라질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태국,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.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

[제854호 - 인도네시아] 외국인 광산 소유 제한하는 인도네시아

2012년 3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(Mine) 소유 지분 한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법령(Presidential Decree)을 공포했다. 새 법령에 따라 광산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생산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광산 지분의 49%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.

구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대 80%까지 지분 소유가 허용됐다. 다만 생산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최소한 20%의 지분을 처분하면 됐다. 이에 따라 비록 20%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대 60%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생산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...(중략)

권용숙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

- [제854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](#)